



심령 (유령)



체험담

鳥越敦司

심령 또는 유령이라고해도 좋다. 나도 서른 넷, 다섯 살까지는이 유령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정확히 몇 월에 본지를 잊어 버렸으므로, 두 살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귀신 이야기 따위 누구나보고들을하고 알고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유령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어디에서도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유령 따윈 존재하는지,라고 생각하거나 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귀신 체험담 다니 상당히 있고, 정말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도 서른 넷, 다섯 살이되었다. 그 무렵, 신문 배달을하고 있었으므로, 아침은 세시에 일어나 자전거로 신문 판매점에가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생활에서는 심령 사진 책 등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해도 세시에서 새벽 캄캄한 시간에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대리점에 향해 있었다. 주택지의 집이 많은 작은 길을 국도로 나올 때까지 달리고 있으면, 어느 모퉁이에 왔을 때 있던 것이다. 계절은 겨울이었다. 그런데도 반소매 흰색 얇은 의상으로 뭔가 외국인의 젊은 여성 같은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마침내 나왔다고 생각했다. 뭔가 투명듯한 느낌으로 육체라는 느낌이 아니다.

. 조금 그 여성은ゆらりと 움직였다. 신비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일을하고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것에는 가지 않고 그곳을 지나 갔다.

귀신을보고 발광하는 사람도있다. 나도 심령 사진을 많이 보지 않는 경우에, 이상이되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것이 아닌 느낌은 확실히 머리가 미쳐 가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처럼 새벽에 오토바이로 일을 향해 있고, 어떤 집에서 어린 아이가 몇 명이나 나왔다. 나는 밤샘 일까,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밤샘도 아이가 새벽 세 시경에 일어나 있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심령이었던, 그리고 생각이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신문 배달 도중 아직 밤은 새해 않은 무렵에 집 근처에 오면 저쪽에서 옷을 온 노인이 다 그을음 그을음과 땅을 부드럽게 걸어왔다. 그리고 우회전있는 집안에 들어갔다. 나중에 거기를 통과 할 때 그 여자가 들어간 곳을 보면, 거기는 전부 벽에 입구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확실히 유령 것이다. 이 세가지는 모두 새벽이다. 심령 이랄까 유령은 어쩌면 밝은 곳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하다.

그런데, 귀신과 습기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다고도 말한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사가 여성을 태우고 나중에 없어진 것을 눈치 챘다 때 앉아 있던 시트는 젖어 있었다 라든가 이야기가있다. 내가 도쿄도 마치 다시의 아파트에서 방 안에 관엽 식물 등 습기가 높아지는 것을 용기에 물을 넣어두고 있기도했을 때 어느 날 밤 문득 무언가가 방에 들어오는 기척이 들었다. 나는 이불에 누워 있었지만, 갑자기 양손을 짓 눌린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중 그 누군가가 나간 것이다 양손은 자유롭게되었다. 그래서 습도와 관계가있는 것일까 생각 물이나 따위를 버리게되면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글을 쓰고있을 때, 밖은 비가 내리고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이었다. 이런 때야 말로 이런 이야기 실화를 써보고 싶어지는 것도 심령 유령은 습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첫 번째 실화는 후쿠오카 현 후쿠오카시 더 쓰면 사와 라구의 이야기이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귀신을 보지 않았다. 계곤의 폭포에 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자살 충동에 사로 았았다.

처음보고 나면 그 신사 등에 가서 배전 불구하고 신령 생각되는 사람의 모습을보고 하도록이기도했지만, 최근에는 신사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신령을 볼 수도 없어 졌다 .

또, 기회가 있으면 써보기로한다.